

“산림청, 정원 콘텐츠 제작 컨트롤타워 돼주길”

노관규 시장 ‘산림 소통시간’ 초청
전국 자치단체장 최초 특별강연
순천만정원박람회 노하우 공유

노관규 순천시장이 6일 산림청이 주최한 ‘제14회 산림 소통의 시간’에 초청돼 강연을 진행했다.

‘산림 소통의 시간’은 산림 관련 정책 현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소통 강화를 위해 새롭게 마련된 정책강의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전국 자치단체장 중 최초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에는 남성현 산림청장을 비롯해 산불대응 부서를 제외한 산림청과 소속 부서 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노 시장은 특강을 통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 함께 애써준 산림청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정원박람회 개최 과정과 성공 노하우, 향후 비전 등을 공유했다.

노 시장은 “정원은 대단히 전략적인 분야”라며 “인력과 재원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적

지식과 철학적 눈높이가 선행돼야 제대로 된 정원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정원뿐 아니라 도시를 바꾸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간을 보는 눈과 상상력”이라며 “기존의 정원에 만족하고 있기보다 획기적인 사고 전환으로 이전에 없던 정원, 이전에 없던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강연이 종료된 이후에는 산림청 직원들의 열띤 질의가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대한민국 전역에 정원 열풍을 불러온 선도 도시로서 조언을 청하는 질문에 대해서 “지방 도시들이 무분별하게 대도시를 모방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없기에 고유 매력에 경쟁력으로 삼는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라며 순천의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다.

정원의 지속가능성과 향후 비전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재정 투입을 통해 정원을 지속해 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순천만과 정원 등 순천의 우수한 아날로그적 가치는 지키면서, 애니메이션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노관규 순천시장이 6일 산림청이 주최한 ‘제14회 산림 소통의 시간’에 초청돼 강연을 진행했다.

순천시 제공

적 요소를 도입해 정원의 영역을 더욱 넓혀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정원박람회를 치르면서 남성현 산림청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탄소중립·기후위기 등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춰 산림청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산림청 역할을 강조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 역시도 순

천처럼 이전까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노관규 시장의 강연이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한다”며 “순천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산림청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정원산업 육성과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한 순천의 공로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민관협력 복지 사각지대 발굴
장흥 회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흥군 회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노영금, 강현갑)는 2023년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조직이다. 위기가구 발굴, 복지지원 발굴 및 연계 등 민간 중심 지역복지 실천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도 결산보고 및 2024년 추진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의결하고 올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추진 결과를 공유하며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현갑 민간위원장은 “동절기를 대비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노영금 회진면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
순천시, 운행정지 등 처분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시민 불편 해소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으로 차고지 외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1.5톤 초과)와 건설기계 등 차고지를 위반해 밤샘주차(오전 0시~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이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최대 5일) 또는 과징금(최대 20만 원)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지난 2월부터 단속반 2개 조를 편성해 민원 다수발생지역 및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와 불시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단지 주변 이면도로, 공원 인근 등 대형차량 불법 주차가 빈번해 사고위험, 통행불편, 주차난, 소음, 공해 등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시 교통관리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를 단속할 예정이다.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화물 소유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단속해 총 3545건을 적발·계도하고, 이 중 77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 국토부 대중교통 시책평가 ‘전국 1위’

전국 지자체 중 최초 6년연속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국토교통부 ‘2023년도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전국 1위 기관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책 수립 유도를 위해 2년마다 ‘대중교통 시책평가’를 실시했다. 올해는 전국 161개 특별·광역시·군을 인구 규모 및 도시철도 유무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대중교통 시설·서비스, 행정 및 정책지원,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해 평가했다.

여수시는 순천, 광양 등 인구 30만 이하 그룹에 편성돼 36개 시군과 경합 결과, 전국 1위인 대상을 차지하며 국토교통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전남도에서는 여수시가 유일한 수상

지자체다.

시는 지난 2007년 평가 도입(2년 주기) 이래 2020·2022년 실적 최우수 기관 선정을 포함,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6회 연속 수상했다.

여수시는 지난 2년간 △ 시내버스 노선 개편 △ 도시형 교통 모델도입 △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 바우처 콜택시 및 장애인 콜택시 운영 △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및 자동 무인 방역기 설치 등 시민 중심 대중교통 시책을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정수환 교통과장은 “6회 연속 수상 저력으로 어르신 무료 버스 시행, 급출발·급제동 근절 등에 더욱 힘써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장흥군 지승공예 특별전

장흥군은 11월30일부터 12월4일까지 용산면 마실장에서 ‘지승공예 특별 전시회’를 열었다.

장흥군 제공

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항 한국형 스마트항만 구축

국내 최초…7371억원 투입

광양항에서 국내 최초 한국형 스마트항만 조성을 위한 ‘광양항 자동화부두(항만자동화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추진된다.

6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광양항 자동화부두 구축사업은 2021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120대 국정과제’, ‘지방시대 지역과제’에 선정됐다.

최적의 평면배치 및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 애초 사업비보다 1091억원이 증가한 7371억원이 투입된다. 사업기간도 2022~2026년에서 2022~2029년까지로 단계별 개장을 통해 충분한 안정화 기간을 거치면서 한국형 완전 자동화항만의 완성을 견인하게 될 전망이다.

여수광양공사는 기반시설과 자동하역

장비로 구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화부두 기반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복합공종(토목·건축·전기·통신 등)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한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한다. 자동하역장비는 제조·구매 형태로 계획해 연내 발주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국내 항만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주재로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확대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광양항 자동화부두 구축사업’을 통해 완전 자동화항만 구축의 핵심장비인 무인이송장비(AGV)의 부품 국산화를 50% 이상 끌어올려 국내 주요항만에 확대·보급해 한국형 스마트항만 구축에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순천시, 국가정원표 수국 ‘가든 컬렉션 레드’ 개발

국립종자원 품종보호 등록

순천시는 국가정원표 순천수국 ‘가든 컬렉션 레드’ 신품종을 개발해 국립종자원의 품종보호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품종보호제도는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다. 특허권과 유사하게 육성자에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한다.

새로운 품종이 출원되면 국립종자원은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품종명칭 고유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품종보호를 결정하고 품종보호권을 등록한다.

순천시는 정원후방산업 육성을 위해 2019년부터 신품종 육종연구를 해 왔으며 개발된 순천수국을 품종보호 등록해 자체 지식재산권을 확보했다.

순천수국 ‘가든 컬렉션 레드’ 품종은 국내에서 육성한 수국 가운데 최초로 빨간색 계열이다. 타 품종에 비해 양지에서 비교적 잘 견디며 여름철 정원식물 소비 확



순천시가 국가정원표 순천수국 ‘가든 컬렉션 레드’ 신품종을 개발해 국립종자원의 품종보호 등록을 마쳤다.

순천시 제공

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름 정원식물로 선호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수국은 국내에 대부분 외국품종이 유통되고 있어 국내 환경에 적응하고 관상 가치가 높은 국산 품종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순천시 관계자는 “정원식물의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로 우리 품종을 확대하여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로열티를 경감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